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nual Report 2014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73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4억 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협력기구입니다.



Contents

메시지 | 5

연합의 주요활동 | 9

- I. 제10차 NEAR 총회
- II. 2014 NEAR 국제포럼
- III. 분과위원회
- IV. 제9회 실무자 Workshop
- V. 제2회 NEAR청소년에세이 공모전

2014 행사일정 | 27

대외협력 네트워킹 | 31

연합기반강화 | 37

사무국 소개 | 41

부록 | 45



메시지

Message

NEAR International Forum 2014
One Northeast Asia Region, One Community
- Challenges & Opportunities -

August 27-29, 2014 | Khabarovsk, Russia



Message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어느 해 보다 심했던 2014년을 뒤로 하고, 평화와 안정이 기대 되는 2015년 '양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세계 3대 경제 축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그 비중이 날로 커지는 동북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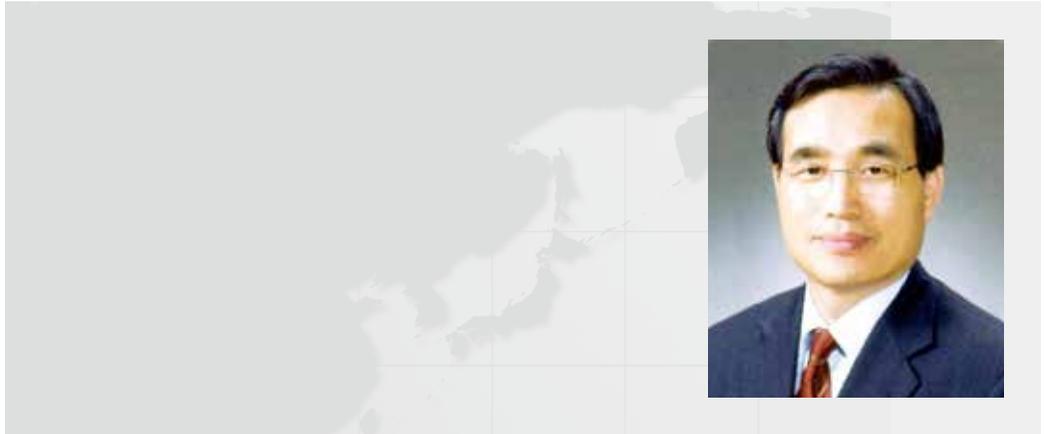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4년에도 동북아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했지만, 동시에 지역 내에는 오래되었거나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내의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은 물론, 국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지방 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던 해였습니다.

이에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합(NEAR)은 2013년 스위스 소재 기후변화대응 지방정부기구 (R-20: Regions of Climate Action)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NEAR 포럼에서 R20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4년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동북아 기후변화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8월에는 제6차 NEAR 국제포럼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서, 10월에는 제10차 총회를 의장단체인 한국 전라남도 영암에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하나되는 동북아지역, 하나되는 지역공동체"라는 대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는 유라시아(Eurasia)와 동북아지역의 발전적 결합, 환동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모색, 기후변화에 대한 동북아지역의 대응방안을 세부 주제로 삼아 우리가 맞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동북아 공동협력시대' 라는 주제하에 열린 10차 총회는 NEAR사무국 주요활동보고, 회원단체 대표발표, 총회의제 및 보고사항 등과 사무국의 제안사항 발표와 이에 대한 회원단체의 의견수렴과 전라남도 선언문 채택 및 발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동북아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에 대한 특강 세션을 통해 이해도를 증진하였습니다.

올해 분과위원회 활동으로는 방재, 교육문화교류, 생명의료, 광물자원개발·조정 4개 분과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어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회원지방정부간의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교류,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생명의료분과위원회는 "동북아지역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에서 설립이래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회원자치단체 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제안 및 논의를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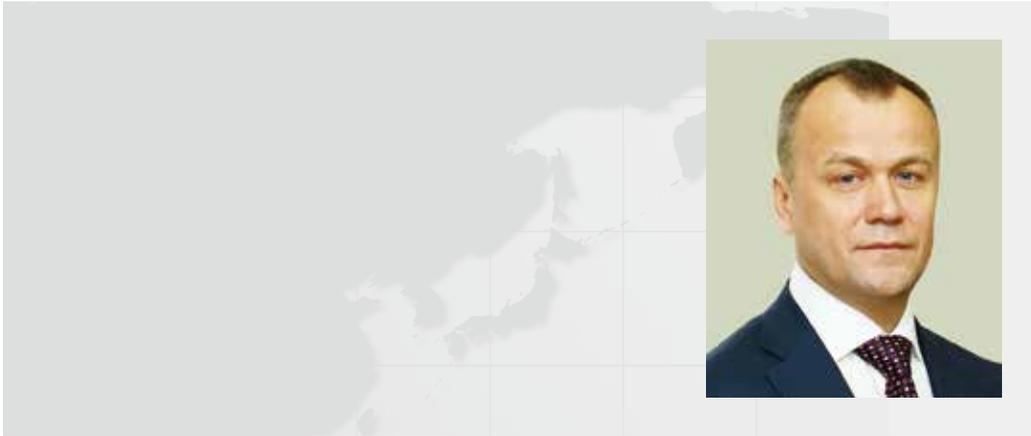
회원단체간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동북아시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북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2회 ‘에세이 공모전(Essay Contest)’이 실시되었으며,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의 청소년 46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기회 제공, 전문성 제고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NEAR 청년인턴십(PioNEAR)’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이 러시아 투바공화국에 한국어 강사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회원단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향후에는 협력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R20와의 청년 이동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간의 협력에 앞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NEAR는 창립 20여 년이 되어감에 따라 이런 시대적 경향에 맞추어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및 신뢰회복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 정신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하나되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등 지속적인 역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3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재효**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회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합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모든 협력분야에서 지역간의 교류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해보면 2014년은 국가간, 연합 회원단체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방재분과위원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생명의료분과위원회,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 '하나되는 동북아 지역, 하나의 공동체'란 주제로 열린 NEAR 국제포럼, 제10차 NEAR 총회 등 많은 행사들을 치렀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연합이 창설된 1996년부터 NEAR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NEAR의 회원단체로 활동하면서 우리 주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과의 잠재력 있는 협력 관계를 맺어 경제무역 및 인도적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중심축에 서서, 경제, 산업, 과학, 문화, 관광,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보낸 2014년을 축하하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새로운 성과들로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NEAR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공동의 노력이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4. 12. 3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장 / 러시아연방 이르쿠츠크주지사 **예로센코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The 10th NEAR

제10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총회

연합의 주요활동

October 22, 2014 |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Main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지혜와 경험의 교류 협력 허브

I. 제10차 NEAR 총회

1. 행사개요

제10차 NEAR 총회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새로운 동북아 공동협력시대 창조”를 주제로 한국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중국 5개 단체, 일본 4개 단체, 한국 12개 단체, 몽골 6개 단체, 러시아 4개 단체, 비회원단체 2개 등 총 5개국 33개 단체와 옵저버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 주요내용

10월 22일 개막식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의 환영사, 김재효 NEAR 사무총장과 명현관 전라남도 의장의 축사에 이어 연합의 각종 주요활동보고, 회원지방정부의 대표발표, 총회의제발표 및 심의, 사무국의 제안사항 발표와 이에 대한 회원단체의 토론 및 의결, 전라남도 선언문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NEAR 회원국가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수록 회원국들이 자주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김재효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동북아의 꿈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역설하였다.



가. 주요의제

10월 22일 오후에는 2013년 제9차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의 의제가 총회에 상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하카시아공화국의 연합 신규회원가입
- 2) 실무위원회 운영 (제10조 제1항)과 사무국 운영 (제12조)의 연합현장 개정
- 3)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 2016년 총회유치 신청 및 차기 의장단체 선정

나. 사무국 제안사항

- 1) NEAR 회비제 도입
- 2)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 3) NEAR 사무총장 배 노래자랑대회 개최

다. 전라남도 선언문

<전라남도 선언문>발표에 이어 의장단체인 한국 전라남도에서 차기 의장단체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로 NEAR 의장기가 전달되었다. 전라남도로부터 NEAR 의장기를 전달받은 이르쿠츠크주 NEAR 담당자 임로자 씨가 의장단체선정에 지지를 보내준 NEAR회원단체와 사무국에 감사를 표하며 이르쿠츠크주가 NEAR 회원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동북아지역 회원단체들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는 이르쿠츠크주지사의 감사메시지를 대독했다. 앞으로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될 실무위원회와 총회에 회원단체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

전라남도 선언문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등 5개국 33개 회원단체들과 읍저버 및 비회원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상정된 의제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총회는 '새로운 동북아 공동협력시대의 창조'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는 시대적 도전에 적극 부응하면서, 당면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간,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지역, 하나되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1. 총회는 신규회원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린성과 러시아 연방의 하카시아 공화국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2. 총회는 2016년에 열리는 제11차 총회를 2년 임기의 의장단체를 맡는 러시아연방의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3. 총회는 연합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상설사무국의 운영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장기적으로 존속하기로 전차 총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장의 관련규정을 각각 개정하였다.
4. 총회는 연합창설 20주년이 되는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연합의 기본회비제 도입에 관한 사무국의 제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비도입의 목적, 운영방법 등에 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여 2015년 제10차 실무위원회에 정식제도로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5. 총회는 사무국에서 제안한 현행 14개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0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6. 총회는 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인턴십 제도(PioNEAR) 운영, 청소년 에세이 공모 프로그램과 더불어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노래경연대회를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4년 10월 22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3. 부대행사

참가자들은 생태브랜드를 전세계에 널리 알린 한국 대표정원인 '순천만 정원'을 방문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원문화를 둘러보며 감상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세계 철강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초일류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시찰하였다. 참가자들은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성장한 포스코의 성공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기회

II. 2014 NEAR 국제포럼

1. 행사개요

2014 NEAR 국제포럼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서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하나되는 공동체 -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중국 3개 단체, 일본 하바롭스크 총영사관, 한국 7개 단체, 몽골 2개 단체, 러시아 5개 단체 등 5개국 25개 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단체연합 사무국과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가 공동으로 해외에서 개최한 첫 사례로 그 의미를 더했다.



2. 주요내용

8월 28일 개막식은 김재호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레빈탈 하바롭스크변경주 제1부지사의 환영사,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의 축사, 정태익 한국외교협회장의 기조연설, 미셀 사방 R200이사회 의장의 특별연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포럼에서는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적 결합’, ‘환동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모색’, 기후변화와 동북아시아 대응’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가. 오프닝 세션

김재호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NEAR 국제포럼이 동북아 6개국 광역지방정부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의 저명한 전문가와 대표들도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로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음을 소개하였고 레빈탈 제1부지사는 NEAR의 창립준비와 2002년 제4차

총회가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하바롭스크주의 발의로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그동안 하바롭스크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모든 회원단체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정태익 한국외교협회장은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영토 및 정치적 주권의 인정',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 존중' 등 동북아 규범 3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극동개발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한·러 협력의 수준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특별연설에서 마셜 사방 R20이사회 의장은 R20가 새로운 녹색경제를 위한 재단의 설립을 통해 각 지역 및 도시들이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장려하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녹색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였고 특히, 녹색사업에 필요한 미래 직업인 양성에 목적을 둔 '국제 이동형 교육프로그램'의 발족을 공지하며 R20과 NEAR 회원단체들과의 녹색경제를 향한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국제포럼축사를 하였다.



나. 제1세션 – 유라시아와 동북아지역의 발전적 결합

레빈탈 하바롭스크변경주 제1부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화두가 되었고 특히, 철도망이나 도로망과 같은 물류 네트워크의 연결과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제1발표자로 나선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TKR·TSR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축, 남·북·러 PNG연결, 한·러 전력개통 연계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한국은 극동 시베리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제2발표자인 더르쑈 슈르후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학연구원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몽골 발전전략과 일맥상통하고 몽골과 협력하기에도 시기상 적절하며, 또한 몽골의 발전을 위한 도로건설과 에너지 자원개발을 함께 있어서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토론시간에서 슈준롱 헤이룽장성 동닝화신그룹 부회장은 중·러 지역의 협력 특히, 농업협력의 정책적, 지리적 이점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이어서 이마무라 히로코 토야마대학 극동지역연구센터장은 동북아 각국들의 역내에서의 교류 및 역할 확대는 협력과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며 외교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적으나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음을 피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칼라쉬니코프 하바롭스크주 부지사는 러시아는 유럽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해나기면서 동북아로 방향을 전환하여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며 러시아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극동지역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 제2세션 – 환동해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모색

제2세션은 렌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제1발표자인 우하오 지린대학교 극동지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의 ‘창지투개발전략’의 실시가 두만강지역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으나 전면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며 ‘확고한 정치적 신뢰구축’, ‘지역협력개발을 위한 조정 및 구성 조직의 격상’, ‘금융, 에너지, 물류 등 핵심분야의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2발표자인 미무라 마쓰히로 환동해경제연구소 조사연구부장은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국제적, 국내적 수평적 관계형성이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의 횡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간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동 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원동욱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두만강유역의 초국경적 개발에 대해 현재 중국주도의 양자간 협력구도를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3자 또는 다자간 협력 구도로 전환함으로써 환동해 경제권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바트투르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학교수는 몽골과 일본 간의 뿌리 깊은 적대관계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을 통해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라. 제3세션 – 기후변화와 동북아지역대응

제3세션은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동북아시아지역의 대응을 주제로 다루었다. 제1발표자인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후변동성 확대가 보건건강, 개인과 지역사회의 라이프스타일, 에너지 소비, 식량생산, 정부재난관리 등에 끼치는 위협과 더불어 기후관련산업과 다른 과학기술 금융산업간 융·복합의 모색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발표자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북한의 선봉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한스자이델재단의 활동을 소개하며 나진에서 녹색개발의 비즈니스 기회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한국의 ‘골든트라이앵글’에서의 환경 협력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토론에서 천잉즈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기후환경 영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분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기후환경 협력이 진전되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시사하였고 동북아 기후환경 협력에 대한 장애요소와 가능성의 분석을 통해 동북아시아 기후환경 협력을 계속하여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오키무라 타다시 시마네현립대학 종합정책학부교수는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협력의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은 국가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며, NEAR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환경협력 및 공동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톨로호노프 러시아연방의회 상원의원은 몽골의 발전을 위해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외국인력 도입, 유기농법을 이용한 농산물 개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며 ‘바이칼호수와 셀렝그강 삼각주의 세계유산보호’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였다.

마. NEAR와 R20 간 MOU 체결

김재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과 미셸샤방 기후변화대응지역(R20) 이사회의장은 국제포럼 오픈링 세션 후 포럼회장에서 두 국제기구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북아에서의 저탄소 사업개발 투자와 3백만 유로 예산규모의 사전투자시설(Pf)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R20연례회의, R20 세계기후정상회담, NEAR 에너지기후변화 분과위원회 등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 부대행사

29일 오전 하바롭스크시 '식소예프 동물정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곰, 늑대, 스라소니 등 러시아 극동 지방의 야생동물들을 관람하고 오후에는 '그로데코프 하바롭스크지역 박물관'을 방문하여 자연사, 아무르 역사, 극동문화사, 극동지역 전쟁사 등의 테마로 꾸며진 전시실을 둘러보며 러시아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과 이해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



교류협력과 회원단체 간 네트워크 증진

III.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개요

연합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는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의 보조기구로, 총회에서 제시되는 특정 의제를 주관하기 위해 구성되거나, 특정 산업이나 주요 의제에 대해 주관(Coordinator)을 희망하는 회원단체의 독자적인 제안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되며, 연합의 가장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2013년도에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명칭변경을, 체육분과위원회 신설이 의결된 이후로 2014년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격년제로 운영되지만 일부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코디네이터 단체인 충청북도에서 개최하였다.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주요활동 분야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구성연도	개최횟수	주요활동 분야
경제인문	대한민국 경상북도	1998년	10회	통상촉진, 무역상담, 세미나 등
환경	일본 토야마현	1998년	11회	표착물 조사, 환경심포지움 등
방재	일본 효고현	1998년	12회	재해 피해예방, 방재능력 향상
변경협력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2005년	2회	금융, 운송, 세관 인프라 조성
교육문화교류	일본 시마네현	2001년	14회	인재육성, 문화교류 활성화 등
과학기술	대한민국 경기도	2007년	3회	과학기술교류 등
관광	중국 허난성	2008년	2회	관광전시전 및 홍보, 협력포럼
해양어업	중국 산둥성	2008년	3회	해양자원 이용 등
광물자원개발조정	러시아 마가단주	2010년	3회	광물자원 채굴과 가공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2010년	1회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체계 등
여성아동	몽골 도르노드아이막	2010년	1회	여성, 아동 관련 정보 교환 등
생명의료산업	대한민국 충청북도	2011년	1회	의료산업 교류 협력 등
농업	대한민국 전라남도	2011년	1회	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체육	러시아 사하공화국	2013년		체육관련 정보 및 교류

2. 2014년 분과위원회 개최

제12회 방재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효고현에서 중국, 한국, 몽골, 러시아 4개국 16개의 회원단체 및 타 지자체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방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방재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간의 방재체제 강화와 회원단체 간 네트워크를 증진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2) 회의내용

니시지마 켄지 효고현 방재기획과 과장보좌 겸 계장이 '효고의 방재 대책'이라는 주제로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대한 개요를 비롯한 복구 과정, 분야별 노력과 남겨진 과제에 대한 대응 및 향후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방재기관과의 의견교환시간에는 ADRC(아시아방재센터), IRP(국제방재부흥협력기구), JICA간사이가 참석하여 방재인적자원개발, 대재해를 통해 얻은 교훈, 방재 교육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다.

3) 부대행사

현지시찰로 참가자들은 '인간과 방재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지진재해(고베대지진, 동일본대지진) 현장 모습을 보고 복구 현장 영상을 시청하였다. 또한, '효고현 광역방재센터'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주는 방재 교훈에 관한 강연과 비축창고 시찰, 실제 재해 상황 등을 체험하였다.



제14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일본 시마네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 회의내용

진자이 히데히로 일본 시마네현 환경생활부차장의 환영인사와 NEAR사무국의 인사를 시작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공생하기’라는 주제로 회의가 개최되었다. 1박2일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각 나라별로 일본과 영토분쟁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공생해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교환회도 가졌다.

제1회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한국 충청북도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5개국 20개의 회원단체 및 타지방자치단체에서 50여 명이 참가하여 제1회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시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원자치단체 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제안 및 논의를 하였다.



2) 회의내용

설문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의 개회사와 김재호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동북아 자치단체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생명분과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었다.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염영일 부원장이 “한국의 생명의료산업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 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정부투자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바이오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한국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역 거점 별 바이오연구 개발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바이오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였다.

회원단체 사례발표에서는 “동북아시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참가회원단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한국 충청남도는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 일본 시마네현은 피부관련사업, 러시아 연해변경주가 치과의료기술, 중국 헤이룽장성이 건강보건시스템, 몽골이 바이오산업 기업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다.

3) 합의사항

장규태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이 이끈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동북아시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동북아시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문제는 어느 한 자치단체나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NEAR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를 통해 공동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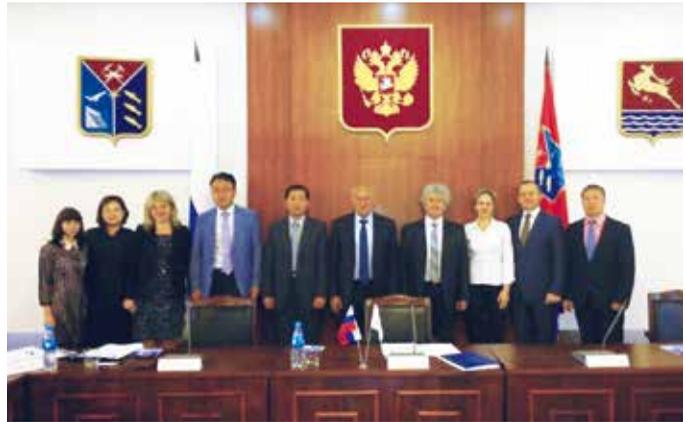
4) 부대행사

회의 후 참가자들은 K-Beauty 갤러리,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청남대 등 충북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관광명소를 현지시찰함으로써 생명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제3회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마가단주는 NEAR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7월 19일 마가단시에서 NEAR사무국, 마가단주정부 관계자, 마가단주 광산업체 대표, 러시아 다른 지역의 기업 대표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NEAR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회의내용

마가단주 정부는 세계에서 광산업분야가 발달한 곳이 마가단주이기 때문에,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에게 투자환경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마가단주 정책들을 소개하였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마가단주 특별경제구역 지정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법령을 개정하였다고 전했다.

현재 마가단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중 중국투자기업인 안티몬, 금, 은 산지개발 주력기업 <Tonghua Mingbang Industrial & Trading사>의 참여로 광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2014년 초, 광산회사 텐허(Tianhe)사는 지질연구, 아연, 납, 은, 구리, 철, 카드뮴, 게르마늄 등의 탐사 및 채굴권과 2012년 10월부터 금·은광석의 탐사 및 평가 감정권을 따냈다. 또 다른 기업인 러시아 폐쇄형 주식회사 <동북석탄회사>는 석탄광산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마가단주의 노천채굴이 가능한 석탄 매장량은 1억 톤에 달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프로젝트 비용이 120억 루블 정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중·일 3국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며,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해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3) 합의사항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경험 확대는 마가단주의 전략목표이다. 따라서 천연자원에 대한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NEAR 회원 중 광산업체 관계자들을 분과위원회에 참가시켜 공통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천연자원의 공동개발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다음 제4회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는 2016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의서에 이종환 NEAR 사무처장과 카르펜코 마가단 제1부지사가 각각 서명했다.

4) 부대행사

본 행사 전 7월 18일, 마가단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가단시에서 주최하는 '제1회 국제마가단투자박람회'에 참석하였고, 본 행사 당일 마가단시 설립 75주년 기념행사 퍼레이드를 관람하였다.

3. 2015년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2015년도에는 방재(효고현 3월), 경제인문(경상북도 6월), 체육(사하공화국 7~8월), 교육문화교류(시마네현 8월), 해양어업(산둥성 9~10월), 농업(전라남도 9월), 환경(토아마현 하반기) 등의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러시아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단체인 체육분과위원회는 설치 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단체들의 분과위원회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므로 현행 14개로 운영되는 분과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10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상호협력과 신뢰형성의 창(窓)

IV. 제9회 실무자 Workshop

1. 행사개요

NEAR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숍이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한국 대구광역시 인터볼고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중국 3개 단체, 일본 5개 단체, 한국 14개 단체, 몽골 13개 단체, 러시아 1개 단체 등 총 5개국 37개 단체 80명이 참가하여 회원단체간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손병해 경북대학교 교수가 “문화적 공통성 발전을 통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고, NEAR 사무국에서는 2014년 중점추진업무로 제10차 NEAR 총회 개최 지원, 2014 NEAR 국제포럼 개최, 분과위원회 활성화 지원, 청년 인턴프로그램 시행 등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회원단체의 지역발전 우수사례발표 및 회원단체 교류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다음날 참가자들은 NEAR회원단체 탐방 일환으로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둘러보았다.





2. 주요활동

특별강연

특별강연으로 손병해 경북대학교 교수가 '문화적 공통성 발전을 통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 즉 유교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 및 활용하여야 하며, 21세기 세계통합의 중심축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세계시장 질서 창출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회원단체 발표

회원단체의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표로,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관광자원을 재검토하여 주요 고객층을 바꿔 장기간 홍보한 결과 성공적인 관광지로 부활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어 한국 광주광역시에는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즉 문화적 도시정체성을 살리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몽골 비양홍고르아이막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조성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승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시와 시골의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사업활동으로 소득이 증가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러시아 투바공화국에서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소개하였다.



3. 부대행사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 건축으로 꼽히고 조선시대 5대 서원의 하나인 “병산서원” 현장시찰을 통해 한국의 유교문화를 체험하였다.



동북아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의 “꿈” 심기

V. 제2회 NEAR청소년에세이 공모전

공모전 개요

NEAR사무국에서는 회원단체간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회원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제2회 NEAR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했다.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중국 6편, 일본 4편, 한국 9편, 몽골 5편, 러시아 22편으로 총 46편이 제출되었으며, 한국 경상북도 포항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허선영 학생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중국의 장위엔, 일본의 미시마 아오이, 한국의 박수완, 몽골의 바트체첵, 러시아의 석자 알렉산드라 5명에게는 각각 우수상이 수여되었다.

2015년에는 많은 회원단체 청소년이 에세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 회원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歡迎北



東アジア交流の翼 迎
Welcome to shimane!

2014 행사일정

Event Schedule of Member Regions in 2014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우부르항가이 (몽)	낙타폴로대회	1. 15	바롱비양-올랑군
효고현 (일)	효고안전의 날 집회	1. 17	효고현 고베시
대전광역시 (한)	한국광학회	2. 12 ~ 2. 14	대전 DCC
도로노고비아이막 (몽)	몽골 낙타 축제	2. 14 ~ 2. 16	도로노고비아이막
제주특별자치도 (한)	제2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	2. 19 ~ 2. 21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러)	제11회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	2. 27 ~ 3. 1	크라스노야르스크시
대구광역시 (한)	2014 대구국제섬유박람회	3. 5 ~ 3. 7	대구EXCO
사하공화국 (러)	제2회 드미트리예프 유소년 국제레슬링대회	3. 7 ~ 3. 9	야쿠트스크시
효고현 (일)	제12회 방재분과위원회	3. 10 ~ 3. 13	효고현 고베시
광주광역시 (한)	SWEET 2014	3. 12 ~ 3. 14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한)	제1회 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	3. 15 ~ 3. 21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대구광역시 (한)	제11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4. 2 ~ 4. 4	대구 EXCO
대전광역시 (한)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	4. 4 ~ 4. 5	대전DCC
대구광역시 (한)	제11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4. 9 ~ 4. 11	대구 EXCO
대전광역시 (한)	한국고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4. 9 ~ 4. 11	대전DCC
전라남도 (한)	2014 완도해조류박람회	4. 11 ~ 5. 11	완도군 완도항일원
대구광역시 (한)	제13회 대구국제안전경전	4. 16 ~ 4. 18	대구 EXCO
부산광역시 (한)	2014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4. 16 ~ 4. 18	벡스코
대전광역시 (한)	국제와이즈만 아태총회	4. 19	대전 DCC
산둥성 (중)	제2회 아시아태평양 뉴미디어 서밋포럼	4. 25	지난시
광주광역시 (한)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5. 15 ~ 5. 18	김대중컨벤션센터
후베이성 (중)	제9회 중국 중부지역투자무역박람회	5. 18 ~ 5. 20	우한시
경상남도 (한)	제10회 2014 국제자동차정밀기기전	5. 20 ~ 5. 23	창원 컨벤션센터
NEAR사무국	NEAR 실무자워크숍	5. 21 ~ 5. 23	대구 인터볼고
인천광역시 (한)	글로벌 녹색 프로젝트 상담회	5. 26 ~ 5. 28	인천 송도 알펜시아
제주특별자치도 (한)	제9회 제주포럼	5. 28 ~ 5. 30	서귀포시 해미치리조트
부산광역시 (한)	2014 부산국제모터쇼	5. 29 ~ 6. 8	벡스코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대전광역시 (한)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총회	5. 30 ~ 5. 31	대전 DCC
산동성 (중)	제3회 한국식품박람회	6. 4 ~ 6. 8	지난시
산동성 (중)	제8회 엔타이 국제와인박람회	6. 12 ~ 6. 14	엔타이시
대구광역시 (한)	제14회 국제식품전	6. 12 ~ 6. 15	EXCO
광주광역시 (한)	2014 세계수소에너지기술대회	6. 15 ~ 6. 20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한)	제24회 국제해양 및 극지공학학술대회	6. 15 ~ 6. 20	벡스코
사하공화국 (러)	제2회 국제컨퍼런스	6. 19 ~ 6. 21	야쿠트스크시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러)	제4회 크라스노야르스크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뮤직 페스티벌	6. 26 ~ 7. 4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사하공화국 (러)	제3회 UNESCO 국제컨퍼런스	6. 28 ~ 7. 3	야쿠트스크시
우부르항가이 (몽)	양염소축제	7. 18	주옹비양울랑군
마가단주 (러)	제3회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	7. 19	마가단시
효고현 (일)	제5회 황새 미래국제회의	7. 19 ~ 7. 20	도요오카시
우부르항가이 (몽)	야크축제	7. 23	바트울지군
강원도 (한)	세계기독교청장년면려회 한국대회	7. 23 ~ 7. 26	황성 웰리힐리파크
헝타이아imak (몽)	'알타르간'보라드민족 예술스포츠타대회	7. 25 ~ 7. 27	다달군
시마네현 (일)	제14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8. 1 ~ 8. 6	시마네현 마즈에시
대전광역시 (한)	과학기술과 사회통합컨퍼런스	8. 4 ~ 8. 8	대전 DCC
경상북도 (한)	2015 국제수학연맹총회	8. 10 ~ 8. 11	경주시 현대호텔
효고현 (일)	홍콩 푸드 엑스포 2014	8. 14 ~ 8. 18	홍콩컨벤션&전시센터
대전광역시 (한)	국제천문연맹아태총회	8. 18 ~ 8. 22	대전 DCC
부산광역시 (한)	201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8. 27 ~ 8. 29	벡스코
대구광역시 (한)	제5회 국제LED & Display 전시회	8. 27 ~ 8. 29	대구 EXCO
NEAR사무국	2014 NEAR 국제포럼	8. 27 ~ 8. 29	하비롭스크변경주
부산광역시 (한)	제2회 부산국제물포럼	8. 28 ~ 8. 29	벡스코
옵스아이막 (몽)	옵스트너습 우수상품박람회	9. 4 ~ 9. 5	울랑검시
효고현 (일)	국제 프론티어 산업 견본시장 2014	9. 4 ~ 9. 5	효고현 고베시
헤이룽장성 (중)	제3회 신소재 산업박람회	9. 6 ~ 9. 8	하얼빈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사할린주 (러)	국제컨퍼런스(사할린 석유와 가스)	9. 9 ~ 9. 10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러)	세계챔피언 권투대회	9. 9 ~ 9. 14	야쿠츠크시
광주광역시 (한)	2014 국제관계배수위원회 광주총회	9. 14 ~ 9. 20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한)	2014 국제기후환경산업전	9. 17 ~ 9. 19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한)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9. 19 ~ 9. 22	백스코
대전광역시 (한)	아태측정표준협력기구총회	9. 19 ~ 9. 26	대전시 DCC
제주특별자치도 (한)	2014 제주국제크루포럼	9. 23 ~ 9. 25	제주그랜드호텔
제주특별자치도 (한)	제1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9. 24 ~ 9. 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도 일원
광주광역시 (한)	ACE Fair 2014	9. 25 ~ 9. 28	김대중컨벤션센터
충청북도 (한)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9. 26 ~ 10. 12	충북 오송
산둥성 (중)	중국 취푸 국제 공자문화 페스티벌	9. 27 ~ 9. 29	지닝 · 취푸
충청북도 (한)	제1회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9. 30 ~ 10. 3	충북 오송
강원도 (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9. 30 ~ 10. 18	평창 알펜시아, 용평
사하공화국 (러)	제6회 국제레슬링 그랑프리대회	10. 3 ~ 10. 5	야쿠츠크시
대구광역시 (한)	2014 대구국제 커피&카페 박람회	10. 8 ~ 10. 11	대구 EXCO
산둥성 (중)	제15회 국제채소식품박람회	10. 16 ~ 10. 19	엔타이
부산광역시 (한)	2014 ITU 전권회의	10. 20 ~ 11. 7	백스코
경상남도 (한)	제10회 KIMEX 2014	10. 21 ~ 10. 24	창원컨벤션센터
NEAR사무국	제10회 NEAR 총회	10. 21 ~ 10. 24	전라남도 영암군
강원도 (한)	국제걷기연맹총회	10. 22 ~ 10. 24	원주시
강원도 (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10. 23 ~ 10. 26	강릉종합운동장
돗토리현 (일)	국제장애자아트전	10. 25 ~ 11. 3	돗토리시 돗토리현립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한)	2014 국제복싱협회 세계총회	11. 9 ~ 11. 1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한)	대전세계혁신포럼	11. 11 ~ 11. 13	대전 DCC
대구광역시 (한)	제3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	11. 19 ~ 11. 22	대구 EXCO
대구광역시 (한)	제15회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11. 19 ~ 11. 22	대구 EXCO
부산광역시 (한)	제11회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11. 27 ~ 11. 29	백스코

대외협력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ing

Signing Ceremony for the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R20 and NEAR

August 28, 2020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R20 Group of Governors and Leaders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중국 지린성 외사 대표단 NEAR 사무국 방문

2014년 1월, 중국 지린성 외사판공실 왕즈웨이 부주임이 이끄는 지린성 외사대표단 일행이 NEAR사무국에 방문하였다.
 김재호 사무총장은 지린성 외사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며, 지린성의 회원가입과 제10차 총회에 참석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에 왕 부주임은 사무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제10차 총회에서 지린성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제2회 환동해발전 국제세미나 참석

2014년 2월, 제2회 환동해발전 국제세미나에 김재호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현황과 환동해 시대를 위한 과제'란 주제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방재분과위원회 참석 및 회원단체 방문

2014년 3월, NEAR사무국 일행은 일본 효고현에서 개최하는 제12차 방재분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방재분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자치단체의 행사에 대한 홍보를 약속하였다.
 행사 후 회원단체인 시마네현을 방문하여 NEAR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NEAR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중일 협력사무국 국제포럼 참석

2014년 4월, 김재호 사무총장은 신라호텔(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의 '2014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2014 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에 참석하였다.
 김 사무총장은 TCS 관계자에게 NEAR 홍보책자를 전달하며 동북아시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였다.



국제포럼 준비 협의 차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방문

2014년 4월, NEAR사무국 일행은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에 방문하여, NEAR국제포럼 공동개최를 위해 하바롭스크주정부와 협의(기조연설자, 비자발급문제 등)하였다.



제18회 중국 동서부협력 및 투자무역 상담회 · 실크로드 박람회 참석

2014년 5월, 김재호 사무총장은 NEAR 읍저버 단체인 산시성(陝西省)의 초청으로 제18회 중국 동서부협력 및 투자무역 상담회 · 실크로드 박람회 참석을 위해 시안시를 방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박람회 개막식 참석 후 산시성대외우호협회 리쥘 부회장과 회의에서 산시성의 NEAR회원가입을 정식 요청하는 등 산시성과의 교류협력을 이어갔다.



2015 세계물포럼 D-300 성공대회 다짐행사 참석

2014년 6월, 김재호 사무총장은 대구 엑스코에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D-300기념 성공개최 다짐행사'에 참석하여, 2015 대구 · 경북 세계물포럼(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본 행사에 대한 회원단체의 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제1회 중국-러시아 박람회 참관 및 지린성 외사판공실 방문

2014년 6월, NEAR사무국 일행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 러시아 박람회(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를 참관하여, 헤이룽장성 하오후이룽 부시장과 향후 연합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이후, 지린성 장춘 난후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지린성 외사판공실 장바오상 주임, 왕즈웨이 부주임 외 관계자는 지린성의 NEAR 회원가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사무국은 지린성에 NEAR 국제포럼에 연사초청 및 회원단체 참석을 요청하였다.



2014년 동북아시아포럼 참석

2014년 8월, 김재효 사무총장은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도시 시장 포럼(Northeast Asian Mayors' Forum)에 UNESCAP, ICLEI, ADB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 국제기구 대표로서 초청되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은 '녹색성장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Sustainability And Inclusive Cities, based on green growth)'라는 주제로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의 모스크바, 천진, 평창, 니가타, 평양 등 16개 주요도시 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후변화대응지역(R20)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014년 8월, 러시아 하바롭스크 NEAR 국제포럼에서 NEAR 와 R20는 동북아시아의 저탄소 개발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MOU협약을 통해서 유럽과 동북아시아 사이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탄소 발전과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R20은 최신 청정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에 유럽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NEAR는 동북아 청정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사할린주정부 방문

2014년 8월, NEAR사무국 일행은 러시아 사할린주정부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사할린주 세르게이 호토츠키 부지사, 엘레나 수다코프 사할린 투자유치 및 대외관계 장관 등 관계자를 만나 제10차 NEAR 총회 홍보 및 NEAR 관련행사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할린주정부와 NEAR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경북대학교 조인식 및 특별강연

2014년 10월, 김재효 NEAR사무총장은 한국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BK21 플러스 "신동북아시아 러시아, 유라시아 문화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전문인력 양성 사업단"과 협약 조인식 및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번 협약체결로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단의 '신동북아시아 러시아, 유라시아 문화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재효 NEAR 사무총장이 특별강연을 하였다.



World Summit of Regions for Climate 참석

2014년 10월, 김재효 NEAR사무총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World Summit of Regions for Climate에 참석하였다. 2세션 “The COP21 positive agenda as seen by regional actors” 주제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발표, 토론하였다.

World Summit of Regions for Climate에서는 5대륙을 넘어 지역과 지방정부, 경제 지도자들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협정서를 공식화하고 2015년에 파리에서 열릴 제21회 기후변화회의(COP21)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 선언하였다.



제7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2014년 11월 NEAR사무국 일행은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7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창립 7주년을 맞아 초국경 경제협력력을 통한 남북한경제공동체 추진전략과 동시에 한미 및 군사안보 측면의 조화전략을 논의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인천국제교류재단 국제인천 팸투어 참가

2014년 11월, NEAR사무국 해외파견공무원이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인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에 참가하였다. 이번 팸투어는 한국 내 국제기구, 외교공관, 국제교류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2014 인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첨단시설로 설계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대표 지역 송도, 영종 일대를 둘러보는 것과 주요 컨벤션 시설 시찰과 인천 역사 유적지 탐방, 한국전통문화체험으로 진행되었다.



동북아 신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 세미나 참석

2014년 11월, 동북아 신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 세미나가 한국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각계인사 250여 명이 참석하였고, ‘동북아 신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날 김재효 NEAR 사무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NEAR의 역할을 홍보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외교부, 국방부가 후원하고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동북아공동체 연구재단이 협력하였다.





NEAR International One Northeast Asia Region

- Challenges & Opportunities

August 27-29, 2014 | Khabarovsk

NEAR International Forum 2014
One Northeast Asia Region, One Community
Challenges & Opportunities

BATTUR Jamiyon

Won Dong-woo

РЕНДИН
Олег Маркович

연합기반강화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Global Forum 2014
One, One Community
Opportunities -
Suzdal, Russia



1. NEAR 회비제 도입 제안

1. 도입방향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현장 규정에 따라 연합이 운영되다가 2008년 제7차 총회에서 연합행사 개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회원자치단체연합의 책임감 있는 연합활동 참여를 위해 회비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회비 징수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모든 회원단체들이 수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기본회비제 도입을 제안한다.

2. 회비제 운영 제안

회비부과방식

- 전 회원에게 동일한 연회비를 부과하는 기본회비와 회원단체별 경제지표,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로 운영

도입시기

- NEAR 창설 20주년이 되는 2016년부터 단계로 기본회비를 부과 (회원단체별 내부절차 등을 감안)

회비

- 연회비 US \$2,000

회비의 용도

- 연합의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
- 단, 기존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상운영비는 경상북도에서 계속 부담

2.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제안

1. 제안이유

현재의 분과위원회는 산업별, 주제별로 14개가 설치되어 각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회원단체(Coordinator)에 의해 운영되고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코디네이터 단체에서 행사를 단독으로 개최하는데 대한 재정적 부담과 단일 주제로 행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어 분과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4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각 위원회별로 관련있는 4~5개의 분과위원회를 배치하여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별로 효율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제안내용

업무협조가 가능하고 유사성이 있는 분과위원회들을 묶어서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이 분과위원회별로 논의하여 분과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동개최하는 등 합리적 운영안을 마련하여 행사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3. NEAR 홍보동영상 제작

국내외의 NEAR 사무국 방문자,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각종행사 참석자 및 회원단체, 유관기관 등에 NEAR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5월에 2개 언어(영어, 한국어)로 제작하여 NEAR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특히 홍보동영상은 NEAR비전, 정체성, 이미지, 미래상 등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2014년 12월에는 4개 언어(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로 확대제작할 계획이다. 언어별로 제작된 홍보동영상을 회원단체, 유관기관, 타 국제기구에 배부함으로써 NEAR의 홍보대상 확대 및 다양화를 꾀할 계획이다.

4. NEAR NEWS 발간

NEAR NEWS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격월로 발간된다. 회원단체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2005년에 창간되어 NEAR와 사무국 및 회원단체의 동정과 소식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NEAR NEWS는 주로 특별기고, NEAR활동, 사무국소식, 회원자치단체 동정과 기획취재, 회원단체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7월에 NEAR NEWS 창간호를 발간 한 후, 매월 발간하여 오다가 현재 격월로 6개 언어로 확대 발간하고 있으며 NEAR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NEAR *Leading the New Era of Northeast*



사무국 소개

The Secretariat



1. 운영

연합의 사무국은 1996년 창설 이래 2년 임기의 의장단체가 사무국 운영을 병행하는 순회사무국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연합이 확대·발전함에 따라 순회 사무국운영 방식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회원단체의 공감에 따라, 2004년 중국 하이룽장성에서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4년 임기제 상설사무국 운영이 합의되었으며, 연임 제한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상설사무국의 유치를 제안, 합의되었으며, 운영 예산은 경상북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2012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는 임기제 상설사무국에서 진일보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사무국운영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재무

사무국에는 17명의 상근 및 파견인원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US \$100만(한화 11억 원 / 600만 위엔 / 1억 2,000만엔 상당) 내외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하고 있다.

3. 회비제

연합의 현장에 의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회비제 도입을 유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창설이래 연합의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최 회원단체가 부담하며 참가 회원단체는 최소한의 참가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장 비중이 큰 사무국 운영비는 상설사무국 운영제도가 합의되면서 사무국 유치 회원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회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7차·제8차·제9차 총회에 걸쳐 회비제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10차 총회에서 연합의 기본회비제 도입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에 대해 협의하고 회비제 도입의 목적, 운영방법 등에 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여 2015년 제10차 실무위원회에 의제로 심의하기로 하였다.

4.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김재효	
	사무처장 이종환	
	기획총무과장 박창호	
	국제협력과장 홍정우	
	김영남 (경상북도파견직원)	
	윤혁준 (경상북도파견직원)	
	박성민 (국제협력팀장)	
	이혜정 (중국전문위원)	
	치흥정 (중국파견직원)	
	이명은 (일본전문위원)	
	마쓰오 슈이치로 (일본파견직원)	
	르함 히식자르갈 (몽골전문위원)	
	바트소이르 온드라흐 (몽골파견직원)	
	최주화 (러시아전문위원)	
	안나 라만 (러시아파견직원)	
	김경실 (영어전문위원)	
	김유진 (행정전문위원)	



부록

Appendix



NEAR Members

China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ilongjiang Province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 Jilin Provi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nan Province • Hubei Provi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ndong province • Hunan Province 	
Japa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igata Prefecture • Hyogo Prefecture • Fukui Pref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ama Prefecture • Kyoto Prefecture • Yamagata Pref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ttori Prefecture • Aomori Pref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mane Prefecture • Ishikawa Prefecture
South Korea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yeongsangbuk-do Province • Gyeonggi-do Province • Jeollabuk-do Province • Busan Metropolitan City • Daejeon Metropolitan City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yeongsangnam-do Province • Chungcheongbuk-do Province • Jeollanam-do Province • Daegu Metropolitan City • Gwangju Metropolitan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ngwon-do Province • Chungcheongnam-do Provinc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Incheon Metropolitan City • Ulsan Metropolitan City 	
North Kore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mgyeongbuk-do Province • Rasun city 			
Mongolia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v Province • Dornod Province • Dorno-govi Province • Bolgan Province • Arkhangai Province • Govi-Altai Province • Bayan-Ulgii Province • Darkhan-Uul Provi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enge Province • Sukhbaatar Province • Dund-govi Province • Uvurkhangai Province • Khuvsgul Province • Khovd Province • Orkhon Provi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aanbaatar City • Khentii Province • Umnu-govi Province • Bayankhongor Province • Zavkhan Province • Uvs Province • Govi-Sumber Province 	
Russia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habarovsk Territory • Irkutsk Region • Chita Region • Republic of Tyva • Republic of Khakas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khalin Region • Republic of Sakha(Yakutia) • Primorski Territory • Altai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ur Region • Tomsk Region • Magadan Re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mchatka Region • Republic of Buryatia • Krasnoyarsk Territory • Kemeromo Region

NEAR Observers

Chin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nxi Province • Tianjin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anxi Provi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aoning Province
Japan(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amaguchi Prefecture 		

Partners _ AER(Assembly of European Regions) Members

Albania (12)	• Berat • Fier • Lezhë	• Dibër • Gjirokastër • Shkodër	• Durrës • Korçë • Tiranë	• Elbasan • Kukës • Vlore
Armenia (24)	• Lori • Dubrovnik-Neretva • Koprivnica-Krizevci • Osijek-Baranya • Šibenik-Knin • Varazdin	• Tavuš • Grad-Zagreb • Krapina-Zagorje • Požega-Slavonija • Sisak • Vukovar-Srijem	• Hrvatska (HR) • Istra • Licko-senjska • Primorje-Gorski • Moslavina • Zadar	• Brodsko-posavska • Karlovac • Medimurje • kotar • Split • Zagreb County
Austria (6)	• Burgenland • Salzburg	• Kärnten • Steiermark	• Niederösterreich	• Oberösterreich
Moldova (2)	• Cahul	• Soroca		
Netherlands(4)	• Flevoland	• Gelderland	• Limburg	• Noord-Brabant
Norway (9)	• Akershus • Nordland • Vestfold	• Buskerud • Oppland	• Hedmark • Østfold	• Hordaland • Telemark
Poland (3)	• Woj.Dolnoslaskie	• Woj.Slaskie	• Woj.Wielkopolskie	
Portugal (2)	• Açores	• Madeira		
Republic of Macedonia (2)	• Eastern Region (Bregalnica)		• Pelagonia	
Romania (17)	• Alba • Bihor • Braşov • Covasna • Wien	• Arad • Bistriţa-Năsăud • Călăraşi • Dâmboviţa	• Argeş • Botoşani • Caraş-Severin • Tirol	• Bacău • Brăila • Cluj • Vorarlberg
Azerbaijan (2)	• Baku-Surakhani	• Shirvan		
Belgium (3)	• Bruxelles-Capitale	•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 Wallonie
Bosnia/ Herzegovina (12)	• Bosna • Herce-Bosna • Sarajevo	• Podrinje • Hercegovina-Neretva • Tuzla	• Brcko • Posavina • Zapadnam Hercegovina	• Distrikt • Republika Srpska • Zenica-Doboj

Bulgaria (1)	• Ruse			
Cyprus (1)	• Union of Cyprus Municipalities			
Czech Republic (2)	• Královéhradeck'y	• Olomouc		
Denmark (2)	• Nordjylland	• Syddanmark		
Finland (8)	• Etelä-Pohjanmaa • Pirkanmaa	• Keski-Pohjanmaa • Pohjois-Karjala	• Keski-Suomi • Pohjois-Pohjanmaa	• Lappi • Satakunta
France (30)	• Alsace • Champagne-Ardenne • Gorj • Iași • Mureș • Sălaj • Teleorman • Vaslui	• Aquitaine • Corse • Harghita • Ilfov • Neamț • Satu • Timiș • Vrancea	• Auvergne • Dolj • Hunedoara • Maramureș • Olt • Mare • Tulcea	• Centre • Galați • Ialomița • Mehedinți • Prahova • Sibiu • Vâlcea
Russia (5)	• Ingushetia • Tatarstan	• Karelja	• Mordovija	• Samara
Serbia (1)	• Vojvodina			
Slovakia (2)	• Kosice	• Trnava		
Spain (3)	• Catalunya	• Comunitat Valenciana	• Región de Murcia	
Switzerland (20)	• Aargau • Fribourg • Franche-Comté • Languedoc-Roussillon • Picardie	• Basel-Landschaft • Genève • Guadeloupe • Limousin • Poitou-Charentes	• Basel-Stadt • Graubünden • Guyane • Martinique • Réunion (La)	• Bern • Jura • Ile-de-France • Midi-Pyrénées • Rhône-Alpes
Germany (2)	• Baden-Württemberg	• Hessen		
Georgia (7)	• Adjara • Kvemo Kartli	• Guria • Shida Kartli	• Imereti • Tbilisi	• Kakheti
Greece (3)	• Kentriki Makedonia	• Kriti	• Sterea Ellada	

Ireland (1)	• Donegal			
Italy (14)	• Abruzzo • Friuli Venezia Giulia • Toscana • Valle	• Basilicata • Lazio • Trentino-Alto Adige • d'Aosta	• Bolzano (Provincia) • Molise • Trento (Provincia) •	• Campania • Sardegna • Umbria •
Hungary (16)	• Bács-Kiskun • Neuchâtel • St. Gallen • Valais	• Baranya • Nidwalden • Thurgau • Vaud	• Békés • Obwalden • Ticino • Zürich	• Luzern • Schwyz • Uri • Zug
Sweden (14)	• Dalarna • Kronoberg • Sörmland • Västernorrland	• Gävleborg • Norrbotten • Uppsala • Västra Götaland	• Jämtland • Örebro • Värmland	• Jönköping • Östsam/Östergötland • Västerbotten
Turkey (9)	• Bursa • Kahramanmaras • Usak	• Denizli • Kirsehir	• Edirne • Kocaeli	• Istanbul • Samsun
Ukraine (8)	• Dnepropetrovsk • Kyjiv	• Donets'k • L'Viv	• Kherson • Odessa	• Kirovograd • Vinnytsia
United Kingdom (13)	• Hampshire • Győr-Moson-Sopron • Komárom-Esztergom • Tolna	• Borsod-Abaúj-Zemplén • Hajdú-Bihar • Pest	• Csongrád • Heves • Somogy	• Fejér • Jász-Nagykun-Szolnc • Szabolcs-Szatmár-Be

Partners _ R-20(Regions of Climate Action) Members

Africa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thern Region, Burkina Faso • Region Oriental, Morocco • Delta State, Nigeria • Dakar, Seneg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ion des Haut Bassin, Burkina Faso • Region of Taza-Al Hoceima-Taounate, Morocco • Western Province, Rwanda • Matam, Senegal
Asia-Pacific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jarat State, India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Sou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bu, Phillipines
Europe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tria, Croatia • Puglia, Italy • Alba County, Rom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e de France, France • Azores, Portugal • Donetsk, Ukraine
North America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 State of Campeche, Mexico • State of Sinaloa, Mexico • State of California, USA • State of Michigan, U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e of Baja California, Mexico • State of Chiapas, Mexico • State of Quintana Roo, Mexico • State of Connecticut, USA
South America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e of Acre, Brazil • Pichincha, Ecuador 	

Partners _ R-20(Regions of Climate Action) Partner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embly of European Regions(AER) •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s(NEAR)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World Association of Regions, Metropolis
--	---



'96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Conference '96
1996. 9. 12 경상북도



주최: 대한민국 경상북도
장소: 경주 보문단지

회원지방자치단체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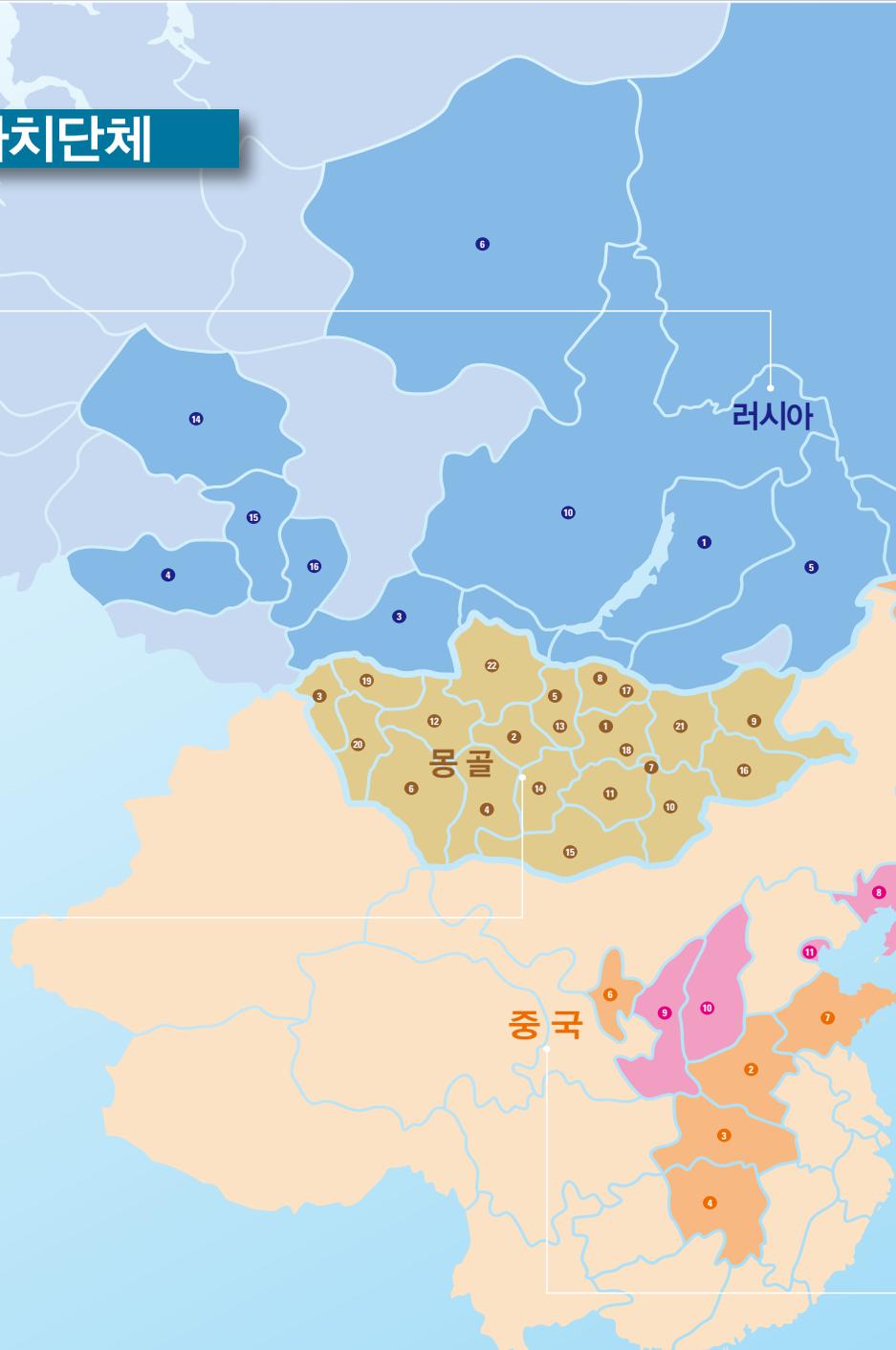


-  ① 부랴티아공화국
-  ② 사하(아쿠티아)공화국
-  ③ 투바공화국
-  ④ 알타이변경주
-  ⑤ 자바이칼변경주
-  ⑥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  ⑦ 연해변경주
-  ⑧ 하바롭스크변경주
-  ⑨ 아무르주
-  ⑩ 이르쿠츠크주
-  ⑪ 캄차카변경주
-  ⑫ 마가단주
-  ⑬ 사할린주
-  ⑭ 톰스크주
-  ⑮ 케메로보주
-  ⑯ 하카시아공화국

몽골



-  ① 울랑바타르시
-  ② 아르항가이아이막
-  ③ 바양울기아이막
-  ④ 바양홍고라이막
-  ⑤ 불강아이막
-  ⑥ 고비알타이아이막
-  ⑦ 고비숨베라이막
-  ⑧ 다르항오울아이막
-  ⑨ 도르노드아이막
-  ⑩ 도르노고바이막
-  ⑪ 돈드고바이막
-  ⑫ 자브항아이막
-  ⑬ 오르홍아이막
-  ⑭ 우브르항가이아이막
-  ⑮ 옴스고바이막
-  ⑯ 수흐바타라이막
-  ⑰ 셸렝그아이막
-  ⑱ 투바이막
-  ⑲ 옴스아이막
-  ⑳ 홉스아이막
-  ㉑ 행티아이막
-  ㉒ 홉스쿨아이막



파트너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정부기구(R20)

세계지도자들이 UN과 협력하여 설립한 기구로서 세계의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발전 프로젝트·정책·수법시례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gions20.org



북한

DPR Korea

- DPR Korea ① 함경북도
- DPR Korea ② 나선특급시

대한민국



- ① 부산광역시
- ② 대구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광주광역시
- ⑤ 대전광역시
- ⑥ 울산광역시
- ⑦ 경기도
- ⑧ 강원도
- ⑨ 충청북도
- ⑩ 충청남도
- ⑪ 전라북도
- ⑫ 전라남도
- ⑬ 경상북도
- ⑭ 경상남도
- ⑮ 세종특별자치시
- ⑯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 ① 아오모리현
- ② 아미가타현
- ③ 니이가타현
- ④ 토야마현
- ⑤ 이시카와현
- ⑥ 후쿠이현
- ⑦ 교토부
- ⑧ 효고현
- ⑨ 돗토리현
- ⑩ 시마네현
- ⑪ 아미구치현 *

중국



- ① 헤이룽장성
- ② 허난성
- ③ 후베이성
- ④ 후난성
- ⑤ 지린성
- ⑥ 닝샤후이족자치구
- ⑦ 산둥성
- ⑧ 라오닝성 *
- ⑨ 산시성 (陝西) *
- ⑩ 산시성 (山西) *
- ⑪ 톈진시 *

* 읍저버단체



유럽지방정부협의회(AER)

유럽자치단체의 공동번영 및 보안성 추구를 위해 1985년 설립된 기구로써 현재 35개국 230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프랑스 알사스 주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www.aer.eu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러시아 국가정책연구기관이자 국립대학원이며 주로 동양학, 북아프리카 서부해안부터 태평양 섬 지역을 연구하며 9개의 학술센터와 11개의 학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www.ivran.ru

